

유형 1) 한시 독해 - 독해 능력 파악

- 한시 자구 풀이 → 함축성 의미 활용

유형 2) 한시 형식 - 한시의 특징 이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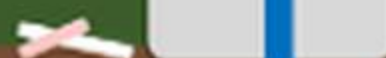
- 절구와 율시, 압운법, 대우법 → 한시 독해

유형 3) 한시 감상 - 독해 능력 파악

- 한시 화자와 분위기, 정서 → 독해력 활용

유형 4) 시나리오 속 시구 적용 - 내용 파악

- 시나리오 내용 이해 → 한시 구절 이해



(가) 長江悲已㉠滯, 萬里念㉡將歸.
 況屬高風晚, 山山黃葉飛.

- 왕발, 「산중(山中)」-

(나) 鏡裏㉢誰憐病已成, 不須醫藥不須驚.
 他生㉣若使君爲我, ㉤應識相思此夜情.

- 박죽서, 「기정(寄呈)」-

28. ㉠~㉤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㉠: 막히다

② ㉡: 장차

③ ㉢: 누가

④ ㉣: 같이

⑤ ㉤: 마땅히

유형1) 한시 독해.

한시 시어 이해

若(약)같다/만약

한시 유형2

2016 (가) 長江悲已㉠滯, 萬里念㉡將歸.
況屬高風晚, 山山黃葉飛.

(나) 鏡裏㉢誰憐病已成, 不須醫藥不須驚.
他生㉣若使君爲我, ㉤應識相思此夜情.

29.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보 기>

- ㄱ. (가)의 형식은 오언율시이다.
- ㄴ. (가)에서 넷째 구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.
- ㄷ. (나)의 둘째 구는 '不須醫藥 / 不須驚'으로 띄어 읽는다.
- ㄹ. (나)에서 셋째 구와 넷째 구는 대우(對偶)를 이루고 있다.

① ㄱ, ㄷ

② ㄱ, ㄹ

③ ㄴ, ㄷ

④ ㄱ, ㄴ, ㄹ

⑤ ㄴ, ㄷ, ㄹ

유형2) 한시 형식.

- * 형식: 절구, 율시
- * 배경: 시간, 계절
- * 끊어읽기: 2/3, 4/3
- * 대우: 율시 함련경련

한시 유형3

2016 (가) 長江悲已㉠滯, 萬里念㉡將歸.
 況屬高風晚, 山山黃葉飛.

(나) 鏡裏㉢誰憐病已成, 不須醫藥不須驚.
 他生㉣若使君爲我, ㉤應識相思此夜情.

30. (가), (나)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(가)에는 시적 화자가 객지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시어가 사용되었어.

② (가)에서는 자연의 풍광이 시적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어.

③ (나)에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적 화자의 체념이 나타나 있어.

④ (나)에는 자신의 심정을 몰라주는 임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어.

⑤ (가)와 (나)는 모두 선경후정(先景後情)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어.



유형3) 한시 감상.
 : 화자의 정서
 * 先景後情



(가) 採藥忽㉠迷路, ㉡千峯秋葉裏.
山僧汲水歸, 林末㉢茶煙起.

* 汲(급): 물을 길다
- 이이, 「山中」 -

(나) 洛陽城裏見秋風, 欲作家書意㉣萬重.
復恐忽忽說㉤不盡, ㉥行人臨發又開封.

* 洛陽(낙양): 지명 * 忽忽(총총): 바쁜 모양
- 장적, 「秋思」 -

28. ㉠~㉤의 풀이로 옳은 것은?

-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① ㉠: 오솔길 | ② ㉡: 높은 봉우리 |
| ③ ㉢: 차 달이는 연기 | ④ ㉣: 매우 무겁다 |
| ⑤ ㉤: 진솔하지 않다 | |

유형1) 한시 독해.
한시 시어 이해
若(약)같다/만약

한시 유형2

201606

(가) 採藥忽㉠迷路, ㉡千峯秋葉裏.
 山僧汲水歸, 林末㉢茶煙起.

* 汲(급): 물을 길다
 - 이이, 「山中」 -

(나) 洛陽城裏見秋風, 欲作家書意㉣萬重.
 復恐忽忽說㉤不盡, ㉥行人臨發又開封.

* 忽忽(총총): 바쁜 모양
 - 장적, 「秋思」 -

29.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지명
 고른 것은?

—<보 기>—

- ㄱ. (가)에서 운자(韻字)는 ‘裏’, ‘起’이다.
- ㄴ. (가)에서 셋째 구와 넷째 구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.
- ㄷ. (나)의 형식은 칠언절구이다.
- ㄹ. (나)에서 셋째 구와 넷째 구는 대우(對偶)를 이루고 있다.
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ㄴ, ㄹ
- ④ ㄱ, ㄴ, ㄷ ⑤ ㄴ, ㄷ, ㄹ

유형2) 한시 형식.

- * 운자: 짝수구 끝자
- * 배경: 시간, 계절
- * 끊어읽기: 2
/3, 4/3
- * 대우: 올시 함련경련

(가) 採藥忽㉠迷路, ㉡千峯秋葉裏.
山僧汲水歸, 林末㉢茶煙起.

(나) 洛陽城裏見秋風, 欲作家書意㉣萬重.
復恐忽忽說㉤不盡, ㉥行人臨發又開封.

유형3) 한시 감상.
: 화자의 정서

*望鄉, 鄉愁

30. 시적 화자가 ㉥와 같이 행동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?

- ① 전달할 편지를 잃어버릴까 봐.
- ② 편지를 받을 사람이 떠날까 봐.
- ③ 다른 사람이 편지를 읽어 볼까 봐.
- ④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 떠났을까 봐.
- ⑤ 편지에 쓰지 못한 말이 더 있을까 봐.



한시 유형1

2015수능

(가) 春來萬里客, 亂㉠定幾年歸.
腸斷江城鴈, 高高正北飛.

* 鴈(안): 기러기
- 두보, 「귀안(歸鴈)」-

(나) 少年常愛山家靜, 多在禪窓讀古經.
白髮偶然㉡重到此, 佛前依舊一燈青.

- 신광한, 「투숙산사(投宿山寺)」-

28. ㉠과 ㉡의 풀이로 모두 옳은 것은?

- | ㉠ | ㉡ | ㉠ | ㉡ |
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|
| ① 그치다 | 소중하다 | ② 그치다 | 다시 |
| ③ 결정하다 | 소중하다 | ④ 결정하다 | 다시 |
| ⑤ 약속하다 | 소중하다 | | |

유형1) 한시 독해.
한시 시어 이해
若(약)같다/만약

한시 유형2

2015수능

(가) 春來萬里客, 亂[㉠]定幾年歸.
腸斷江城鴈, 高高正北飛.

(나) 少年常愛山家靜, 多在禪窓讀古經.
白髮偶然[㉡]重到此, 佛前依舊一燈青.

29.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보 기>

- ㄱ. (가)의 형식은 오언율시이다.
- ㄴ. (가)의 첫째 구는 ‘春來 / 萬里客’으로 띄어 읽는다.
- ㄷ. (나)의 첫째 구와 둘째 구는 대우(對偶)를 이루고 있다.
- ㄹ. (나)의 넷째 구에서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.
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ㄴ, ㄹ
- ④ ㄱ, ㄴ, ㄷ ⑤ ㄴ, ㄷ, ㄹ

유형2) 한시 형식.

- *형식: 절구, 율시
- *끊어읽기: 2/3, 4/3
- *대우: 율시 함련경련
- *배경: 시간, 공간



한시 유형3

2015수능

(가) 春來萬里客, 亂[㉠]定幾年歸.
腸斷江城鴈, 高高正北飛.

(나) 少年常愛山家靜, 多在禪窓讀古經.
白髮偶然[㉡]重到此, 佛前依舊一燈青.

30. (가), (나)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?



① (가)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감정이 녹아 있지.

② (가)는 자연물에 감정을 투영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어.

③ (가)에는 시인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어가 사용되었군.

④ (나)에는 자연에 은거하여 살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.

⑤ (나)는 옛 시절을 생각하며 떠오른 느낌을 읊었군.

유형3) 한시 감상.
: **화자의 정서**
* 望鄉, 鄉愁
* 安貧樂道



14. 시나리오의 ㉠에 들어갈 시구로 가장 알맞은 것은?



S#15. 흥노의 궁궐 안

봄날 황량한 사막에 지어진 궁궐을
시름에 잠겨 거닐고 있는 왕소군.
걸을 따르는 시녀, 그런 왕소군을
안쓰럽게 바라본다.

왕소군: 이곳으로 시집온 게 엇그제 같은데 새봄이 되었구나.
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무탈한지…….

시녀: (울먹이며) 마마, 몸이 무척 야위셨어요. 돌아갈 수
없는 고향 생각일랑 그만 하세요!

왕소군: (한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) 온갖 꽃들이 만발한
고향 동산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어떻게 잊을
수 있겠어? (이)라더니, 이곳엔 꽃과
풀조차 없어. 봄이 왔는데도…….

① 春眠不覺曉

③ 春水滿四澤

⑤ 春來不似春

② 山青花欲然

④ 花落今朝風

유형4) 시나리오 속
시구 적용.

*** 春來不似春**



10. 시나리오의 ㉠에 들어갈 시구로 가장 알맞은 것은?



S#49. 처마 밑

동하가 메이와 처마 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.

메이 : (아쉬운 표정으로) 오늘 귀국하지?

동하 : (그윽한 시선으로) 내일로 연기했어. 함께 있고 싶어서…….

때맞추어 단비가 내린다.

메이 : (손을 내밀어 비를 맞으며 마음속으로) ㉠ (이)라더니, 이 사람은 때를 알고 온 것일까?

유형4) 시나리오 속 시구 적용.

호우시절

* 好雨知時節

① 好雨知時節

② 春雨細不滴

③ 錯認爲疏雨

④ 往來風雨中

⑤ 昨夜松堂雨

